

## 아버지의 자녀가치, 양육신념, 양육참여가 영아발달특성 변인에 미치는 영향

전홍주<sup>1</sup>, 조수경<sup>1\*</sup>, 김미정<sup>1</sup>, 최항준<sup>1</sup>  
<sup>1</sup>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 Belief in the value of children's father, grow, influence parenting participation on the infants development characteristics change factor

Hong-Ju Jeon<sup>1</sup>, Su-Kyoung Cho<sup>1\*</sup>, Mi-Jeong Kim<sup>1</sup> and Hang-Jun Choi<sup>1</sup>

<sup>1</sup>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aicha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아버지의 자녀가치, 양육신념, 양육참여가 영아의 발달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변인들의 설명력을 알아보는 데 있다. 연구대상은 2010년도에 출생한 영아 1,802명과 그의 아버지이며 이를 대상으로 한 육아 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여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자녀가치는 영아의 문제해결능력, 소근육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영아의 대근육 활동에는 아버지의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영아의 의사소통, 개인-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은 아버지 양육참여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xplanatory power of factors similar change to see what the value of the child's father give faith, grow, grow what kind of participation in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infants affected. 1,802 people infants born in 2010, the study is his father, I used the data for the next fiscal year 3 Panel Korea Policy Institute childcare children that target it. Analysis of the data, we have carried out frequency analysis using SPSS18.0, The value of the infant's father a child problem-solving skills, fine motor activity been found to affect the activity. Muscle activity for the father of the infant did not influence variables are. And the infant's communication, personal-social variables that affect the independence turned out to be a father involved in parenting.

**Key Words** : Father's child support participation, Father's parenting beliefs, Infant Development, The value of the father's child

## 1. 서론

인간의 발달시기 중 전인적 발달 기초를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는 영아기이다[1]. 이 시기의 성장과 발달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영아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과 부모이며[2] 부모와의 애착에 기초해서 신체발달, 인지발달, 정서발달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3]. 따라서 부모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세상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영아발달의 양상과 결과를 결정하게 되므로 영아기

발달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이 시기의 부모 양육변인은 영아 발달 전 영역에 영향을 주고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발달영역에서 상호작용하며 지속된다 고 보고하고 있다[4].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핵가족화라는 가족체계의 변화에 따라 자녀발달에 아버지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므로 적극적인 양육참여가 당연시되는 새로운 관점이 부여되기 시작 했다.

김광웅, 이인수[5]는 아버지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은

\*Corresponding Author : Su-Kyoung Cho(Paichai Univ.)

Tel: +82-10-5793-7933 email: bbuny2004@naver.com

Received February 5, 2014

Revised (1st April 21, 2014, 2nd April 29, 2014)

Accepted May 8, 2014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 경우 얻게 되는 친밀감이 자녀의 문제 해결력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6].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자녀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과 관련된 변인은 자녀 깊은 관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영아기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은 자녀가치, 양육신념, 양육참여[7]를 택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자녀가치란 아버지가 자녀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됨의 태도와 같은 의미로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등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를 의미하는 것이다[8].

양 부모에게서 받은 각기 다른 자극의 양이 한쪽 부모에게서 받는 일방적인 자극에 비해 영아의 지적, 사회적 발달에 효과가 있다[9]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신에 대한 아버지의 수용적인 태도는 아버지의 역할을 순응적으로 받아들여지게 하고 자녀에 대해 긍정적 가치를 가지게 한다[10].

또한 영아기의 아버지됨은 영아의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아버지들이 자녀에 대한 가치를 높게 가질수록 관심과 애정이 높은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11].

따라서 부모가 되는 것이 가치로운 일이라 여기며 영아에게 민감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영아가 세상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지니는 양육신념은 부모 자신이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이는 부모 행동의 근원이며 자녀와의 사이를 조절하는 중재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예언한다. 양육신념이 높은 경우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신념이 자녀 양육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가 되어 긍정적 양육태도와 양육참여와 관련지어지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12].

아버지가 긍정적 양육신념을 갖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온정적이며 허용적일 때 성취와 학업동기를 높인다는 허영립의 연구결과[13]는 양육신념이 자녀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영아기도 예외가 아니며 양육신념이 높은 아버지는 영아기 자녀 발달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양육참여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전통적인 가족구조에서는 성에 따른 역할분담이 확실하여 아버지는 가장장적인 존재로 경제적 부양의 책임을 담당하는 반면 자녀양육과 교육은 주로 어머니의 역할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모의 역할을 뚜렷하게 구별하기 보다는 부모 모두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즉, 현대사회에서 아버지는 더 이상 어머니의 보조적인 역할이 아닌 어머니와 함께 공동양육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녀와 긴밀한 정서적 관계를 구축하는 능동적 역할이 요구된다[14].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아버지들이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어머니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놀이 경향을 연구한 Parke[15]는 어머니가 자녀와 주로 언어적인 놀이를 하는 반면 아버지는 활동적이며 신체적인 놀이를 주로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조복희[16]는 아버지가 자녀와 상호작용 하는 횟수는 어머니보다 적지만 신체적, 감각적 자극이 수반된 활발한 놀이를 주로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아버지의 활발한 놀이는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9] 특히 자녀의 사회성 및 정서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7,18].

선행연구는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아버지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아버지가 자녀들과 자주 놀아주고 신체접촉을 많이 해주는 등 양육참여에 적극적일수록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는 것을 힘들어 하지 않으며 사회적 유능성이 향상 된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19]. Radin[20]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증가 할수록 유아의 인지능력이 향상되고 공감능력이 증가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희영[21]은 아버지가 자녀의 성향을 잘 알고 놀이를 통해 자녀의 양육에 적극 참여할 경우 문제 해결력도 향상되며 원만한 성격을 가지고 조화롭게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자녀가치 인식과 바람직한 양육신념, 적극적인 양육참여는 영아기의 긍정적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현대사회 가정의 변화는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아버지의 변인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또는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동안 이루어진 아버지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그 대상이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

지 보다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 영아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주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대한 강경옥의 연구[22], 영아 아버지와 사회 정서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주정혜의 연구[23], 영아 아버지의 애착 안정성에 관한 안미정의 연구[24], 아버지의 양육 참여 실태에 관한 김민수의 연구[25]등으로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와 아버지 양육이 영아의 사회성발달,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이 영아의 발달특성의 각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여 영아발달특성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자녀가치, 양육신념, 양육참여가 영아발달특성 변인(의사소통,개인사회성,문제해결,대근육활동,소근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아버지 변인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할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자녀가치, 양육신념, 양육참여와, 영아 발달 특성변인(의사소통, 개인사회성, 문제해결, 대근육활동, 소근육활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아버지의 자녀가치, 양육신념, 양육참여가 영아 발달특성 변인(의사소통, 개인사회성, 문제해결, 대근육활동, 소근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PSKC) 3차년도(2010)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는 전국의 영아 부모를 대상으로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층화단계 표본 추출법[26]을 적용하여 실행한 설문조사이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3차 한국아동패널의 대상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영아 1,802명과 그의 아버지이다. 1차 연구(2008년), 2차 연구(2009년)를 기반으로 하여, 1년 후인 2010년에 3차 연구가 이루어졌다.

3차 한국아동패널의 조사방법으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질문지는 우편조사를 통하여 실시되었으며 면접조사용 질문지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에 대한 응답은 가구 방문을 통한 면접조사로 실시되었다. 한국 아동패널의 연구기간은 2010년 4월~12월에 걸쳐 우편 및 방문을 통합 면접이 이루어졌다. 3차 한국아동패널의 구체적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scription of the variables

variables	division	N	%
Sex	Male	919	51.0
	Female	883	49.0
Months	23~26Months	1331	46.54
	27~29Months	471	25.22
	30~31Months	16	.9
Infants	First	838	46.5
	Second	763	42.3
	Third	180	10.0
	Fourth	18	1.0
	Fifth	33	.2
Age	Under 30s	204	11.4
	Under 40s	1,421	78.8
	Over 41s	159	8.9
	No Answer	5	.3
	Missing data	13	.7
Father	Middle School	10	.6
	High School	429	23.8
	College	313	17.4
	University	772	42.8
	Master	150	8.3
	Doctor	17	.9
	Total	1691	93.8
	No Answer	103	5.7
	Missing data	8	.4
	Of employment /Of academic	Of employment	1743
Of academic		6	.3
Unemployedy		39	2.2
Total		1788	99.2
No Answer		6	.3
Missing data	8	.4	

### 2.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PSKC)의 3차년도(2010) 데이터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2009년, 2010년에 걸쳐 3차년도(2010)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2010년 3차 데이터를 수집하여 2010년에 통계 처리된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다음과 같다.

#### 2.2.1 아버지 자녀가치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용한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27]에서 사용한 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원도구에서는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의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나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이를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원도구는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 않는다’라는 보기가 포함되어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 문항의 경우 자녀 양육의 부담이 매우 큰 출산 직후의 가정에는 변별력이 없는 문항일 뿐만 아니라 개념상 ‘도구적 가치’와 ‘정서적 가치’에 모두 포함되지 않으므로 패널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문항내용은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등의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개념적으로 자녀의 가치에 대하여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의 두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각 요인의 고유치는 정서적 가치 요인이 3.24, 도구적 가치 요인은 1.18이었으며, 전체 변량 중 각 요인이 설명하는 변량은 각각 46.33%, 16.81%로 두 요인이 전체 변량 중 63.14%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Cronbach  $\alpha = .80$ 으로 나타났다.

### 2.2.2 아버지 양육신념

자녀의 양육신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Halman, L(2001)의 ‘The European Values Study(EVS) 1999’에서 사용된 조사도구가 사용되었다. EVS는 1970년대 말 EVSSG에 의해 고안된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관에 관한 대규모의 비교국가 종단연구로 유럽인들의 사회 정치적인 제도와 통치 행동의 기저에 있는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가치를 탐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 아동패널에서 사용한 양육신념 2개 문항은 EVS 2차 년도에 해당하는 1990년부터 포함된 것으로 EVS 1차 년도에 해당하는 1981년도에는 상이한 형태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1차 년도에는 양육신념과 관련된 2개 문항 중 첫 번째 문항에 해당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 문항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두 번째 문항인 자녀에게 기대하는 자질과 특성 중 한국아동패널의 문항에는 11개의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버지의 양육신념 측정 도구는

2문항으로 문항수가 적다는 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앞으로 패널 데이터가 4차, 5차로 연속적인 결과가 제시된다면 문항이 적은 부분을 일부는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다[30] EVS에서 사용한 자녀에게 기대하는 자질과 특성에 대한 문항의 구성은 ‘예의바른 생활습관’, ‘독립심’, ‘근면함’, ‘책임감’, ‘상상력’,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 ‘겸소함’, ‘결단력과 끈기’, ‘종교적 신념’, ‘이타심’, ‘어른 말씀 잘 듣기’ 로 구성되었다. 11개의 특성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5가지를 선택하여 답하는 방법으로 문항이 구성되었다.

### 2.2.3 아버지 양육참여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측정하기 위해서 강희경(1998)의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 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홍성례(1995)의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의 도구를 수정하여 아동패널 검사도구로 사용하였다. 질문에 포함된 내용은 ‘남편은 아기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우유 등을 사다준다.’, ‘남편은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 이다. 이러한 문항에서는 아버지가 시간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해 양육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를 알 수 있으며 정서적 지원 및 양육참여의 실체를 알 수 있다. 점수화 방식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나타내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Cronbach  $\alpha = .86$ 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 2.2.4 영아발달특성

영아 발달을 측정하기 위하여 미국 Oregon 대학에서 개발된 ASQ는 4개월에서 60개월의 영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허계형, Szuires, J., 이소영, 이준식[28]이 국내 영아 3,220명을 대상으로 신뢰도 및 타당화를 구축한 아동발달특성검사(K-ASQ)를 사용하였다. ASQ와 K-ASQ의 질문지는 총 5가지 발달 영역, 즉 의사소통,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문제해결, 개인-사회성에 각 6개씩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유아발달의 제 영역에 대한 자료를 비교적 포괄적으로 수합할 수 있다. 검사방법은 부모가 작성하는 모니터링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질문지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신뢰성 있는 작성성이 용이하다. 보호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점수화하는

것이 간단명료하므로 특별한 혼란 없이도 적용할 수 있다. K-ASQ는 원문 ASQ 2판을 한국 실정에 맞게 2006년에 표준화하였고[28], 전국의 영유아 3,220명을 대상으로 신뢰도, 절선점수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도구이다.

K-ASQ는 5개 영역별 문항에 대한 응답자는 어머니였으며 '예(유아가 행동을 수행할 때)', '가끔(행동을 보이기 시작할 때)', '아니오(아직 행동을 수행하지 못할 때)' 세 가지 중 하나로 응답하였으며, '예'는 10점, '가끔'은 5점, '아니오'는 0점으로 점수화되었으며, 5개 영역별 6개 문항에 대한 응답의 총점을 산출하였다.

K-ASQ에서는 총 3,220명의 영유아와 그의 부모를 표집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영역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75$ , '대근육운동' 영역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74$ , '문제해결' 영역의 경우 Cronbach  $\alpha = .72$ , '개인-사회성' 영역의 경우 Cronbach  $\alpha = .65$ 으로 나타났다.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 조사에서는 해당연령을 고려하여 22,24,27,30개월에 해당하는 검사가 사용되었다. 3차년도 연령에 따른 영역별 발달 점수는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 Development scores of infants

Age	Dependent Variable	Average	standard deviation
22 months	Communication	44.7	14.2
	Gross motor Skill Development	54.5	.3
	Fine Motor Development	47.9	9.2
	Problem-solving skills	49.1	8.9
	Sociality	51.4	8.0
24 months	Communication	49.1	14.4
	Gross motor Skill Development	56.3	6.9
	Fine Motor Development	49.9	9.5
	Problem-solving skills	50.2	10.4
	Sociality	49.9	9.6
27 months	Communication	52.8	10.8
	Gross motor Skill Development	54.6	9.7
	Fine Motor Development	48.9	11.7
	Problem-solving skills	51.9	9.1
	Sociality	47.2	10.4
30 months	Communication	56.0	7.4
	Gross motor Skill Development	56.1	6.4
	Fine Motor Development	51.9	10.9
	Problem-solving skills	54.1	8.5
	Sociality	52.4	7.9

### 2.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8.0 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구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아버지의 자녀가치, 양육신념, 양육참여가 영아발달 특성(의사소통, 개인-사회성, 문제해결, 대근육 활동, 소근육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아버지의 자녀가치, 양육신념, 양육참여와 영아발달 간의 상관관계

아버지의 자녀가치, 양육신념, 양육참여와 영아발달 하위영역 간의 상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아버지의 자녀가치와 영아의 문제해결의 관련성은 .071, 아버지의 자녀가치와 소근육 운동의 관련성은 .061로 나타났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영아의 의사소통의 관련성은 .084,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영아의 사회성의 관련성은 .054,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영아의 대근육 운동의 관련성은 .050으로 나타났다.

영아발달과 아버지 변인간에는 정적, 부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변인들간의 상관계수의 값이 .8이상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의심될 만한 수준은 아니다.

[Table 3]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Father's Factors And Infant Development

	1	2	3	4	5	6	7	8
1	1							
2	.025	1						
3	.060*	-.007	1					
4	.021	-.012	.084**	1				
5	.034	-.001	.054*	.283**	1			
6	.071**	.044	.025	.385**	.384**	1		
7	.030	-.022	.050*	.303**	.266**	.298**	1	
8	.061*	.022	.043	.303**	.309**	.457**	.274**	1
average	3.80	2.05	3.72	8.80	9.14	9.02	9.55	8.88
standard deviation	.58	.38	.84	1.84	1.47	1.31	.99	1.48

1.The value of the father's child 2.Father's parenting beliefs 3. Father's child support participation 4.Communication 5.Sociality 6.Problem-solving skills 7.Gross motor Skill Development 8.Fine Motor Development

### 3.2 아버지의 자녀가치, 양육신념, 양육참여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 3.2.1 아버지 자녀가치, 양육신념, 양육참여가 영아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Table 4에 따르면 영아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로 나타났다. 여러 변인들이 영아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성검증결과  $F=3.963^{**}$ 로  $y = Bx + B'x' + B''x'' + A$  다중회귀모형이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아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beta$ 값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beta=.083$ ,  $p < .001$ )가 영아의 의사소통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자녀가치  $\beta = .011$ , 아버지 양육신념  $\beta = -.014$ 로 나타났다. 아버지 양육참여의  $R^2$ 은 .006을 나타내어 영향력을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 공차한계는 .996, .995, .999 VIF는 1.004, 1.005, 1.001 이었다. 또한 Durbin-Watson의 d통계치는 0에서 4까지의 값을 갖게 되며, 일반적으로 2에 가까울수록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1.808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었다.

[Table 4] The effect of Father's parenting factor on Infant's Communica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beta$	t	$R^2$	F
Communication	Father's child support participation	.181	.054	.083	3.333*	.006	3.963**
	The value of the father's child	.036	.078	.011	.456		
	Father's parenting beliefs	-.068	.122	-.014	-.560		

\*\* $p < .01$  \*\*\* $p < .001$

#### 3.2.2 아버지 자녀가치, 양육신념, 양육참여가 영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Table 5에 따르면 영아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로 나타났다. 여러 변인들이 영아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성 검증결과

$F=2.704^*$ 로 다중회귀모형이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아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beta$ 값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beta=.060$ ,  $p < .001$ )가 영아의 사회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자녀가치  $\beta=.031$ , 아버지 양육신념  $\beta=-.015$ 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의 영향력은 .005이며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R^2$ 은 .005를 나타내어 영향력을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 Durbin-Watson의 d통계치는 0에서 4까지의 값을 갖게 되며, 일반적으로 2에 가까울수록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1.879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었다.

[Table 5] The effect of Father's parenting factor on Infant's Sociality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beta$	t	$R^2$	F
Sociality	Father's child support participation	.105	.044	.060	2.409*	.005	2.704*
	The value of the father's child	.078	.063	.031	1.241		
	Father's parenting beliefs	-.060	.098	-.015	-.611		

\* $p < 0.05$  \*\*\* $p < .001$

#### 3.2.3 아버지 자녀가치, 양육신념, 양육참여가 영아의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영아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3개의 독립변수로 영아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영향력을 측정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F=3.741^*$ 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 아버지 자녀가치는 유의수준 .05에서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영향력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영향력은 .005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개별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영아의 문제해결 능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아버지 자녀가치(  $t = 2.471$ ,  $p < .01$ )로 나타났다.

영아의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beta$  값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자녀가치( $\beta=.062, p < .001$ )가 영아의 문제해결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  $\beta=.032$ , 아버지 양육신념  $\beta=.042$ 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의 영향력은 .005이며 아버지의 자녀가치의  $R^2$ 은 .005를 나타내어 영향력을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 Durbin-Watson의 d통계치는 0에서 4까지의 값을 갖게 되며, 일반적으로 2에 가까울수록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1.898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었다.

[Table 6] The effect of Father's parenting factor on Infant's Problem-solving skill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beta$	t	R <sup>2</sup>	F
Problem-solving skills	Father's child support participation	.049	.039	.032	1.263		
	The value of the father's child	.139	.056	.062	2.471**	.005	3.741*
	Father's parenting beliefs	.148	.087	.042	1.696		

\* $p < 0.05$  \*\* $p < 0.01$  \*\*\* $p < .001$

### 3.2.4 아버지 자녀가치, 양육신념, 양육참여가 영아의 대근육활동에 미치는 영향

Table 7에 따르면 영아의 대근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변인들이 영아의 대근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성 검증결과  $F=1.614$ 로  $y = Bx + B'x' + B''x'' + A$  다중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대근육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독립변인 중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 변인이  $t=1.808$ 로 유의확률 구간 90%~95%(df=3일 경우 유의확률이 90%이면  $t=1.638$ , 유의확률이 95%이면  $t=2.353$ ) 구간안에 포함되어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영아의 대근육활동에 어떠한 독립변인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력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The effect of Father's parenting factor on Infant's Gross motor Skill Development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beta$	t	R <sup>2</sup>	F
Gross motor Skill Development	Father's child support participation	.055	.030	.045	1.808		
	The value of the father's child	.040	.043	.023	.926	.003	1.614
	Father's parenting beliefs	-.048	.068	-.018	-.705		

\*\*\* $p < .001$

### 3.2.5 아버지 자녀가치, 양육신념, 양육참여가 영아의 소근육활동에 미치는 영향

Table 8에 따르면 영아의 소근육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은 아버지의 자녀가치로 나타났다. 여러 변인들이 영아의 소근육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성 검증결과  $F=2.712^*$ 로 다중회귀모형이 유의하였다. Table 7에서 영아의 대근육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Table 8에 따르면 영아의 소근육 활동에는 아버지의 자녀가치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대근육 활동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Table 8] The effect of Father's parenting factor on Infant's Fine Motor Development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beta$	t	R <sup>2</sup>	F
Fine Motor Development	Father's child support participation	.066	.044	.037	1.495		
	The value of the father's child	.137	.064	.054	2.148*	.005	2.712*
	Father's parenting beliefs	.086	.099	.022	.863		

\* $p < 0.05$  \*\*\* $p < .001$

영아의 소근육활동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beta$  값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버지의 자녀가치( $\beta=.054, p < .001$ )가 영아의 소근육활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  $\beta$

=.037, 아버지 양육신념  $\beta=.022$ 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의 영향력은 .005이며 아버지의 자녀가치의  $R^2$ 은 .005를 나타내어 영향력을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 Durbin-Watson의 d통계치는 0에서 4까지의 값을 갖게 되며, 일반적으로 2에 가까울수록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1.930으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었다.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자녀가치, 양육신념, 양육참여가 영아발달(의사소통, 사회성, 문제해결, 대근육, 소근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의사소통 발달에는 아버지 변인 중 양육참여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부모자녀 관계가 향상되어 상호작용 관계의 기초가 되는 의사소통 능력이 발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의 태도와 양육특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영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연구는 긍정적 양육특성은 아버지의 적극적인 부모역할수행을 지지하면서 애정적 양육참여행동에 영향을 미쳐 영아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지지해준다. 즉,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영아의 사회성은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를 많이 할수록 자녀의 협력성, 자기주장점수가 높아진다고 하고 아버지가 자녀들과 자주 말을 하거나, 신체적인 접촉을 많이 하고, 자주 놀아주는 등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사회성이 발달되고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는 것을 힘들어 하지 않으며, 낯선 상황에 잘 대처하고 친사회성이 발달된다는 김정신[30]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자녀양육을 어머니에게만 맡기려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아버지의 역할에 능동적으로 충실할 때 유아의 사회성 및 정서 등이 발달 한다고 본 정은미[18]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버지 참여의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

아버지의 자녀가치와 양육신념은 영아의 사회성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김은지[31]의 아버지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양육신념은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양육신념은 실제 양육행동을 통해 구체화되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32]와는 다른 결과로 신념과 행동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영아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버지의 자녀가치로 나타났다. 김민정[33]은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인지능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는 영아의 문제해결능력에 아버지의 기대가치가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아버지의 양육신념과 양육참여는 영아의 문제해결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박정원[34]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 2세 영아의 문제상황에 대한 판단력은 아직 미숙한 수준으로 문제해결능력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과정에 놓여 있다[35]. 문제해결능력이 완성되기 이전의 영아의 문제해결능력에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유아의 경우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유아의 문제해결능력과 정적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36,21]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문제해결에 대한 연구[37]에서도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문제해결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유아기 자녀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나 유아기 자녀에 대한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버지의 자녀가치, 양육신념, 양육참여는 영아 발달하위 영역 중 대근육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연주[38]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신체활동능력이 아버지의 신체활동참여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기숙, 한유미[39]의 영아의 발달과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관한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의 신체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영아발달 하위영역중 소근육 활동에는 아버지의 자녀가치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정

[33]은 자녀의 기대가치가 높을수록 자녀의 신체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소근육 활동에 아버지의 자녀가치가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아버지가 실제 양육 상황에서 자녀가치가 높을수록 영아의 소근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버지의 양육관련 변인이 영아발달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영아의 의사소통과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 행동 내용이 주 양육자의 역할만큼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버지 양육 참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둘째, 아버지의 자녀가치는 부모됨의 동기로 이어져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이는 영아의 문제해결능력과 소근육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자녀가치와 양육참여가 영아 발달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결과를 통해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을수록 영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 관련 변인이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아버지 양육변인과 발달의 영향을 분석하다보니 연구의 제한점으로 작용하여 보다 장기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36개월 이후의 유아로 하는 후속 연구로 아버지의 양육변인과 유아의 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아버지와 관련된 자녀발달에 관한 유용한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 관련 변인을 자녀가치, 양육 신념, 양육 참여로 한정 시키지않고 양육 참여 시간, 사회·환경적 자원 등 간접적인 영향의 요소들과 함께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뜻 깊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관련된 후속연구를 제안해본다.

## References

[1] Snow, C. E. Understanding social interaction and language acquisition: Sentences are not enough. In B. Bornstein, & J. Bruner(Eds), *Interaction in human*

*development*. Hillsdale, NJ: Erlbaum, 1989.

- [2] S. Y. Park, Child development. Seoul: Kyomunsa, 2006.
- [3] J. S. Oh, *Journal of Life-span Studies* 2012, Vol.2, No.2, 51-65, *The Impacts of Mother's Variou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Infant-rearing Styles on Infants' Developmental Outcomes*, 2012.
- [4] K. H. kim. The Effect of Family Background on physical child Abuse. *Korea Journal of Children Care and Education*, vol.45, 2006. 6.1. pp. 53-74, 2006.
- [5] K. W. .Kim. & I. S. Lee.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 Rearing Involvement of Father and Children's Social Emotional Competence. *Korea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9(2), 1-11, 1998.
- [6] Lewis, C. , Lamb, M. E. Fathers' influences on children's development: The evidence from two-parent familie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Vol.18, No.2, 2003.  
DOI: <http://dx.doi.org/10.1007/BF03173485>
- [7] Y. M.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s Happiness and Infants's Social-Emotional capability. MS thesis Gunkook University, 2010.
- [8] A. J. Yoo, and Y. J. Kim, Parent Education. Seoul: Jung Min sa, 1999.
- [9] Lamb, M E, introduction the emergent american father 3-25 in M Lamb, the fathers role cross-cultural perspectives, 1987.
- [10] Ispa, J. M. Sable, M, R. Csizmadia, N.P. & A. Csizmadia, Pregnancy acceptance, parenting stress, and toddler attachment in low-incom black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69, No.1, pp. 1-13, 2007.  
DOI: <http://dx.doi.org/10.1111/j.1741-3737.2006.00339.x>
- [11] K. h. Ok, and H. Y. Chun, "Maternal Parenting Stress of Infant From Different Income Group: The Relative Importance of Father Involvement, the Marital Relationship and Meanings of parent hood". *Korea Institute of Child Core and Education*, vol. 1, No.3, pp. 487 - 504, 2010.
- [12] N. H. Kim, and S. J. Jang, "A Study on Child-Rearing Attitudes, Involvement Levels, and Self-Efficacy of Young Children's Fath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Vol,16. No.4, pp. 121-139, 2012.
- [13] Y. R. Hur, "A Review of Fathering Behavior in Childrearing." *Educational Research*, Vol.26, No.1, pp. 97-116, 2006.
- [14] Fagan. J. & Palm. G., *Father and early childhood programs*. delmar Learning, 2002.
- [15] Parke, R., Peterson, J.L,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 Society*, Vol. 6, No.3, pp.235-46, 1981.  
DOI: [http://dx.doi.org/10.1016/0361-3682\(81\)90029-5](http://dx.doi.org/10.1016/0361-3682(81)90029-5)
- [16] B. H. Cho, *Child Development*. Seoul: Hak Ji Sa, 1996.
- [17] Y. M. Park,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belief and participation in child-rearing and father-to toddler attachment stability. M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8.
- [18] E. M. Jung, Type of emotional self-disclosure and marital satisfaction of husband and wife who has adolescent children. M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95.
- [19] M. J. Ha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rens education and fosterage and childrens self-perception ability. M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2.
- [20] Radin, Norma, "Childrearing fathers in intact families: I. Som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Merrill-Palmer Quarterly*, Vol.27, pp. 489-514, 1981.
- [21] H.Y.Won,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Father's Play Participation Level and Child's Social Ability. M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1998.
- [22] K. O. Kang, A study on the father's needs and recognition of parent education for infants. MS thesis GunKook University, 2002.
- [23] J. H. Ju, Relationship between Father Parenting Involvement and Social Emotional Development of two year old infants. MS thesis Kyungwon University, 2012.
- [24] M. J. Ahn, A Comparison Between Infact-Father and Infant-Mother Attachment. M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2.
- [25] M. S. Kim, A Study on dual-earner father's child rearing involvement and rearing stress. MS thesis Kookmin University, 2009.
- [26] O. B. Jeong, Research methods for child education. Seoul; Hak Ji Sa, 2008.
- [27] S. S. Lee, 2005 national survey on dynamics of marriage and fertility. Seoul:Kihasa, 2005.
- [28] G. Y. Heo, J. Squires, S. Y. Lee, J. S. Lee, K-ASQ(Korean Age & Stages Questionnaires). Seoul: Seoul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2006.
- [29] H. J. Lim, S. Y. Choi, and H. J. Choi, "Using a structural equation approach to determine how a couple's characteristics, childbirth-related emotions and a mother's emotional characteristics affect planning for second childbirth."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31, No.5, pp. 183-203, 2011.
- [30] J. S. Kim,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according to father's child rearing attitude and rearing involvement. MS thesis Ewha University, 2000.
- [31] E. J. Kim, Father's socialization Beliefs as related to Child Social Behaviors. MS thesis Ewha University, 2002.
- [32] Y. H. Ko, Demographic Variables and The Relations between Maternal Beliefs and Child-rearing Behaviors : A focus on mothers of 2-to 3-year-old children. MS Thesis. Ewha University, 2001.
- [33] M. J. Kim, "The Effect of the Father's Parenting Beliefs and Expectation on the Father's Parenting Intelligenc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17, No.3, pp. 149-166, 2012.
- [34] J. W. Park, Differences in children's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mentality based on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upbringing. MS thesis Chungang University, 2002.
- [35] H. J. You, An Analysis of 2-year-old toddlers strategies to resolve a conflict and teachers intervention types. MS Thesis. Ewha University, 2004.
- [36] H. K. Kwon, "The Relation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the care of Their Children, Mother's Parenting Behavior,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Learning-Related Social Skills of Children".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3, No.4, pp. 79-98, 2009.
- [37] S. E. Yoo, The Difference of children's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Ability by Father's Child Rearing Attitude. MS Thesis Han Yang university, 2007.
- [38] Y. J. Oh, B. H. Jo, and H. K. Kang, "A study on Preschoolers' Physical Activities and the Father's Participation, *Korea Journal of Children Care and Education*, vol. 22, 2000.
- [39] K. S. Kang, and Y. M. Han, "Infant Development, mother's parenting knowledge and father's participation of child - rearing - in rearing in relation with current state and future plan of child-care -".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28, No.6, pp. 71-80, 2010.

**전 흥 주(Hong-Ju Jeon)**

[정회원]



- 2001년 2월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석사 (유아교육전공)
- 2006년 2월 : Arizona State University 박사 (유아교육전공)
- 2007년 3월 ~ 현재 : 배재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 영유아 프로그램, 교사교육

**최 항 준(Hang-Jun Choi)**

[정회원]



- 2010년 2월 : 배재대학교 배재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문학석사)
- 2013년 2월 : 배재대학교 배재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문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배재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사

<관심분야>

유아교육, 영유아 발달, 통계학

**조 수 경(Su-Kyoung Cho)**

[정회원]



- 2011년 2월 : 배재대학교 배재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문학석사)
- 2012년 3월 ~ 현재 : 배재대학교 배재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 2008년 9월 ~ 현재 : 자연마을 어린이집 원장
- 2013년 3월 ~ 현재 : 강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영유아 발달, 유아교육, 부모교육

**김 미 정(Mi-Jeong Kim)**

[정회원]



- 2011년 2월 : 배재대학교 배재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문학석사)
- 2014년 2월 : 배재대학교 배재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수료)
- 1993년 12월 ~ 2002년 5월 : 애린어린이집 원장
- 2004년 2월 ~ 현재 : 사회복지법인 연꽃어린이집 원장

- 2013년 3월 ~ 현재 : 배재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사

<관심분야>

유아교육, 교사론, 장학론, 영유아 발달